

넥스젠, 조류독감 진단제 개발

산자부, NRL 지정 5년간 지원 ... 사료첨가용 · 인체용 동시개발

넥스젠(대표 이선교)은 2005년 12월26일 산업자원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산업체 국가지정 연구실(NRL) 사업의 물체를 이용한 조류독감 진단제 개발과제로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넥스젠은 축적된 Molecular Farming 기술을 바탕으로 재조합 항원을 이용한 진단제의 개발이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선정되었으며 조류(닭·오리 등)에 직접 투여(사료첨가제)할 수 있는 백신은 물론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을 동시에 개발할 계획이다.

조류독감 진단제 개발은 현재까지 이용되던 무균달걀을 이용한 단백질의 생산 방법이 아닌 식물체를 이용한 재조합 항원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무균달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개발기간이 짧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무균달걀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저가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Molecular Farming 기술은 이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 또는 대기업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최신기술로 일부기업은 이미 임상 제2상을 통과했다.

넥스젠은 확보된 Molecular Farming 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동물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Molecular Farming 기술을 실현가능한 산업기술로써 정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방침이다.

한편, 넥스젠은 식물 생산 인간단백질 의약품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하는 <2005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12/30>